



신학과 용감성

로라 하이페츠 Laura Cheifetz

신학은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관해서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창조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이해는 교회, 우리 공동체 및 우리가 참여하는 국가 내의 정책 안에서 살아 갑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교회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신학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교회에서 본 실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큰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신앙과 일치하도록,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실천과 신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제사장)가 필요하다는 관행과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배에 접근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는 용감해야 했습니다. 그의 성명서와 교회에 대한 비판은 곧 그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고, 에스더처럼 그의 삶을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실천으로 이해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어주는 질문을 제기할 때 소속감과 교회에 위험을 감수합니다. 개신교 개혁은 이제 우리가 교육, 계급, 성별 또는 제도에 묶여 있지 않은 신학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학적 대화로 나아가는 것은 마틴 루터처럼 대담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500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독교는 종교 개혁 이후 이미 바뀌었습니다. 미국장로교회의 우리는 지배력과 함께 일하는 지배적인 혹은 제국적인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¹ 미구엘 데 라

¹ 제국은 서구 기독교가 지배적이거나 정통 기독교를 믿음을 정의하고 다른 나라의 교회에 자금을

토레 (Miguel De La Torre)는 이를 목표의 병합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사용하여 [미국 제국],... 토지 정복, 원주민 인구 학살 및 여러 세대의 노예화로 특징지어지는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35 쪽).²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침략자들이었고, 우리 중 일부는 이를 아메리카 대륙의 정착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립-국가는 백인 남성으로서의 토지 소유주와 식민 통치를 위한 선교 사업을 위주로 설립되었습니다. 장로교인은 우리 역사의 대부분에 대해 정부 권력에 직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최소한의 불편을 경험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다면 용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잃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력의 중심은 유럽과 심지어 미국에서, 서쪽과 북쪽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남미에서 변화하고있는 기독교를 향하여 옮겨 가고 있습니다. 제네바나 로마가 되는 크리스천 권력 대신에 우리는 서방 세계에서 우리를 "우리" 선교지로 생각하는 지역인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이었을 때 여성부는 여성과 인종 차별에 관한 세계 교회협의회(WCC) 대표단의 일원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인종 차별주의와 성 차별주의에 관한 우리의 다양한 맥락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20명이 넘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인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미국 밖에서 온 기독교인들과의 저의 의미 있고 지속적인 대화였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변화할 것이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충실한 급속한 확장과 전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관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서쪽에서 우리의 숫자 감소와 우리 자신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주류에 있는 우리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의 방향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던 저에게 묻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백인주의 개신교와 백인 복음주의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기독교는 이민자와 유색인종 사회의 사람들 사이에서 활기와 성장을 보았습니다.³ 개혁주의 전통이 했던 백인주의 개신교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에서 국가 담론에 간신히 나타나기 쉬운 위치로 빠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인에 대해 생각할 때 훨씬 약소화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기독교의 버전이 군대와 경제 확장과 동시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서구 기독교 지배력을 기술하고 있다. 북미에서 영국 식민지가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싸운 제국에 대한 저항의 한 사례입니다.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사람들이었다.

² Miguel A. De La Torre, *Latina/o Social Ethics: Moving Beyond Eurocentric Moral Thinking*. New Perspectives in Latina/o Religion, ed. Miguel A. De La Torre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35.

³ John Sides, "White Christian America is Dying," *The Monkey Cage* (blog), *The Washington Post*, August 15,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6/08/15/white-christian-america-is-dying/?utm_term=.95a8039c255d

미국에서 백인 지배적인 개혁파 전통을 가진 우리에게 제국의 기독교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제국이 나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단이나 신학적 전통을 초월하여 기독교 신앙과 삶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건물, 엔다우먼트, 제도적 구조 및 특별한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용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의 구름 사이에서 용감성

저는 정책이 항상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전 세계로 이동합니다. 아시안계 미국인은 이민, 인신 매매, 토지 도둑질, 철도 건설, 인신 매매 및 노역, 아시아 인을 겨냥한 인종 차별주의, 아시아 국가 간의 아시아 전쟁, 유럽 국가와 미국의 아시아 전쟁 (영국이 전쟁터에 갔을 때처럼)에서 살아 남았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식민지주의, 1917년의 이민법 등이 그 것입니다.

저의 조상은 거부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상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저에게 그 방식을 형성합니다. 저의 아버지 쪽 증조부모는 폴란드의 포로 수용소와 러시아의 반 유태주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쪽 증조부모와 고조부모는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왔지만 1917년의 이민법 개정 후 1952년 McCarren-Walter Act까지 시민이 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 토지법은 저의 어머니 쪽 이민자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943년에는 어머니 쪽 온 가족이 루즈벨트 대통령 집무령 9066에 의해 미국 서부의 수용소로 보내 졌습니다.

저의 조상은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보트를 타고 여기에 왔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고국과 고향으로 돌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제가 가진 것과 같은 권리가 없는 다른 언어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이 나라에서 살고 일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이 진주만 폭격을 행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그들을 감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세요. 사람들은 살아남게 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범이나 명시적인 행동으로 용감하게 부름을 줍니다. 저는 용감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준 네 분의 일본계 미국 여성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정된 억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어린이들로서 모두 같은 세대입니다. 서해안의 일본인과 일본-미국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뿌리 째 뽑혀 철조망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유리 니시타

저의 할머니인 유리 니시타(Yuri Nishita)는 어린 시절에 친 아버지를 잃었고, 다른 부모에게 입양될 때 태어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아주 좋아했지만, 입양한 어머니는 불과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억류 캠프에서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석방 된 후, 그녀는 도시에 가서 비서 학교에 다녔고, 저의 할아버지와 결혼하고 다섯 딸을 키우기 전에 회계 사무원으로 해군에서 일했습니다.

유리 코치야마

유리 코치야마(Yuri Kochiyama)는 자신과 가족을 반전 운동, 푸에르토리코 정치범 석방, 흑인 해방 등 해방 운동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녀의 신념은 저를 고무시킵니다. 그녀는 일본계 미국 억류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무슬림 및 남부 아시아 인종에 대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해 일했습니다.

키요 요시무라와 키요 후지

저는 시카고의 키요 요시무라와 키요 후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이슬람교도의 학대를 조사하는 패널에서 수감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계-미국 감리교회의 일원이었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위함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 두 여인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할머니보다 조금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우리 파티에 왔고 최근 신학교 졸업생, 종교 간 운동가 및 노동인권 사역자들과 상호 교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용감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연방 정부는 수용소에 충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정부가 충성스럽고 불충한 것으로 간주한 두 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27번과 28번 질문은 사람들이 전투 의무나 다른 방법으로 봉사할 의향이 있는지, 응답자가 미국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맹세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알고도 두 질문 모두에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이미 있음을 알고, 그들을 감금한 동일한 정부에 충성할 것인지를 묻는 의도된 질문이었습니다. 불충한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톨레 호수 이주 센터"로 알려진 수용소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응답한 많은 사람들은 하와이 출신의 일본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제100보병 대대와 함께 일하는 분리된 일본계 미국 대대, 442 연대 전투 팀으로 소집되었습니다. 442연대는 여전히 미국 군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유닛으로, 전선에서 전투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들의 좌우명은 "파산을 향해 가라."였습니다.

이 일본계 미국인도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외국 전쟁터에서의 더 가혹한 투옥이나 죽음과 상관없이 그들의 신념에 집착했습니다. 저는 내부에서 정부의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여성과 남성, 그리고 강제 수용소 밖에서 미국인으로서 존재할 권리를 위해 싸운 사람들 - 용감한 증인들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절망에 직면하는 용감성

우리 중 일부는 미국장로교회의 쇠퇴에 대한 절망을 느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에 대한 신념과 인간 존재가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환영합니다. 개혁은 결국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더 최근의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든 급속한 변화에 대해 절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고: 절망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감해야 하는지 설명할 때에, 여러분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그녀의 용감한 신앙 생활을 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선물인 믿음으로 부르신다고 믿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선물에 반응하여 우리의 행동에 감사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무엇이든 하나님께 사랑 받았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의 절망은 최근의 일입니다. 저는 늘 그리하였듯이 매일 일어납니다. 저는 "깨어나자 마자 일상에 뛰어드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깨어난 지 2초 후, 저는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지 기억하며, 위장이 아파움을 느낍니다.

만약 저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계속 읽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불일치 가운데 용감하게 조금 더 읽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당신의 공포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것을 밀쳐 버리고 계속 읽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용감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거에서 여러분이 투표한 사람이 누구였든지, 혹은 이 땅의 여행자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었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투표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전형적인 권력의 전이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45대 대통령의 사업은 주택이 있는 흑인들에 대해 차별을 하였고, 폴란드에서 온 불법체류자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트럼프 타워(Trump Tower)에서 지불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성폭행에 대해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는 고문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를 고용했고, 그의 기반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각의 지명자 그룹을 선택하였고, 정보 기관을 비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다려 보자"는 캠프에 속할지라도 과학적 발견에 대한 존경심과 다른 인종, 종교, 성별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위상을 버린 정부에 의해 우리가 교살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의 절망에 관계없이,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린 시절에도 용기 있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십대였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호빗과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저의 침실 벽에 "왕의 귀환"에서 인용문을 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류를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해의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행할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악을 뿌리째 뽑는 것은 살고있는 사람들의 땅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이다. 그들이 어떤 날씨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다스릴 바가 아니다.⁴

우리가 가지고있는 모든 자원, 즉 목격자, 개인 및 종교역사, 용감한 신자들의 신학 및 유산의 위대한 구름 -우리의 용감성은 그것이 정책 변화, 회중 성장, 또는 우리의 초기 정치적, 문화적 영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요구하기 때문에 용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아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의 직면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행동하고 설교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용기 있게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감한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5세의 조카딸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대답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에스더 왕비를 좋아합니다. 무서워 질 때 나는 에스더 여왕을 생각하며 나는 그녀처럼 용감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의 배우자와 제가 깜짝 놀라 잠시 자리에 앉자 그녀는 점심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용감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흑인들과 함께하는 백인들, 이민자들 및 난민들과 동행하는 시민들, 그리고 동성결혼에 동등한 결혼 권리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과 같이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용감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변 그룹화 된 사람들, 모든 종류의 불의에 종지부를 찍는 유색인종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를 대표하여 기업 착취에서 물을 보호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성에 기반한 폭력을 종식시키려는 여성, 임금을 위해 싸우고 있는 최저 임금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십브라와 부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산파였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여성들이 출산했는지 확인하여 남자아이 출생 시 자신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삶을 위해 목숨을

⁴ J. R. R. Tolkien, *The Return of the King*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2001), 861.

걸었습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용감성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성과 반 인종차별주의 강사들은 불의에 관한 대화에서 "안전한 공간"을 창출 할 수는 없지만 "용감한 공간"을 창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전은 여전히 쿠션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일 수 있습니다. 용감한 공간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친절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맞는 사람 들로만 고립되어 집에 숨어있으며 침묵의 선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사람들로 부터 왔습니다. 저는 사막의 강제 수용소에서 억류된 사람들로 부터 왔습니다.

저는 유대인이나 일본인이기에 평생을 위협으로 살았던 사람들로 부터 왔습니다. 저의 조부모님께서 십대에 집과 농장으로부터 사막으로 가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물러 나려고 합니까? 저의 증조부모가 청소년시 조직적인 학살환경인 포그롬^{pogrom}에서 지구 반대편의 다른 언어와 법체계에 있는 나라로 도망가서 집에 다시는 갈 수 없었는데 저는 누구라고 포기하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를 베풀고 친절을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뒤로 앉아 있거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용감한 기독교 신앙을 크게 펼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승진, 새 직장 또는 육아 휴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앞으로 기울고 계십니다. 제가 보는 것은 우리의 새 대통령 선거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면해야 할 몇 가지 역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8일에 있었던 전국 선거가 있기 전에는 용감성에 대한 다른 유형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국에 저항하고 더 나은 자아에 희망을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저항은 의미심장한 이민 개혁을 위한 노력, 구금 시설에 대한 의무적 최저 요건을 갖추기, 형사 사법 제도의 변화, 기후 변화에 관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선거 후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가끔씩 기대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존하였던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용감하여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용감함으로 만들어 봅시다. 조심스러움이 아닌, "기다려 보자"는 것이 아닌, 우리 회중의 구성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 목젓까지 올라오지만 내뱉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말들이 아닌, 설교에서 직설적인 말들을 제거한 것이 아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삽브라, 부아, 마틴 루터와 같이 주저함과 두려움을 통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흑인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슬람교도, 이민자, 유색 인종,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transgender) 사람들과 같이 앞으로 다가올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게 창조된 몸의 유일한 청지기임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토착 주권과

자주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그대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모델 소수 민족 또는 영원한 외국인이 그 이상임을, 라틴계 사람들 또한 이민자 그 이상임을, 그러나 이민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처럼 존엄하게 대우 받아야함을 큰소리로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칼질하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 회중적, 국가적) 자아의 그림자로 우리를 작게 만드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며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열망에 사로 잡힌 이 시대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의와 자비를 베푸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5: 31-46).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표명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와 함께 분노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5살 혹은 95살이라도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신학을 전파합니다. 신학은 개인적이고 개인은 항상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투표 여부, 투표 방법, 우리가 상호 작용하는 사람,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 기후 변화 또는 경제 정책이나 인권에 관해 생각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로 용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녀가 가능한 죽음에 직면하여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말할 수 있다면, 우리도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가능성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용감 하십시오,” 조직 운동가인 마더 존스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처럼 싸워라." 우리 노인분들, 우리 젊은이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신학과 용감성

대화를 시작하며: 토론 질문들

미셸 바텔 Michelle Bartel

1. 작가는 십브라와 부아의 이야기를 "전략적 용기"의 사례로 묘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전략적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왜 용기 있는 것입니까?
2. 강력한 인물이나 권력구조에 직면 할 때, 예를 들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불의에 항의 할 때 가장 용감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전략적 용감성 이야기에서 이 역동적인 다이내믹과 다른 다이내믹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 하이페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감한 믿음을 가졌음"을 분명히 하고 십브라와 부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에는 권력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우리를 저항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우리는 마틴 루터를 이 기사의 시작 부분에서 간단히 만났습니다. "용감성"이외에, 500년 전에 그의 행동을 표현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왜 그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 저자는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용감했으며 500년 전이 종교 개혁의 시작 부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로교인들은 앞으로 5년, 10년 또는 500년 동안 이 용기 있는 선물을 교회와 세계에 어떻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6. 하이페츠는 우리 독자가 우리 자신의 역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 기사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가족, 공동체 또는 교회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용감성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7.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종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을 듣습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도시"를 의미하는 "polis"에서 옵니다. 귀하의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도시의 평안을 구할 것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귀하와 귀하의 동료 시민이 동의하는 평안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귀하와 귀하의 회중이 도시의 평안을 추구한다면,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